



구약에 나타난 자녀 없는 부부의 문제 해결 방법: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속자 찾기 사례 연구(창 11:27-25:11)

김준(감신대)

1. 들어가는 말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는 부부는 가정에 큰 문제를 갖게 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그들의 노년을 돌보아주거나 경제적 도움을 줄 후손이 없게 된다. 또한 부부가 사망한 후 재산 상속받을 자가 없는 문제, 집안의 대가 끊기는 문제, 사망한 부부를 위해 제사를 지낼 후손이 없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주요한 방법의 하나는 임신하기 위해 신에게 청원하는 종교적인 방법이 있다. 종교적인 방법 중 부차적인 방법으로는 주술이나 부적을 사용하기도 했다. 의학적 방법으로는 임신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약재로 사용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도 불임인 부부는 양자를 들이는 입양제도를 사용하였다. 혹은 남자가 둘째 아내나 여종을 통해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다. 둘째 아내 혹은

www.kci.go.kr

여종을 통해 아이들을 낳게 될 경우 모든 아이가 남편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이 자신의 자녀로 삼는 입양 절차를 거친 아이들만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확정되었다. 불임 부부는 자녀를 낳거나 혹은 입양하여 자녀를 삼음으로써 자신들의 노년 돌봄, 상속자, 사후 제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¹

고대 이스라엘의 삶을 보여주는 구약에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의 사례들이 나타난다: 아브라함과 사라(창 11:27-21:5), 이삭과 리브가(창 25:21-26), 야곱과 라헬(창 29:31-30:24), 마노아와 그의 아내(삿 13:2-24), 엘가나와 한나(삼상 1:2-20),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왕하 4:8-17).² 구약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부부는 그들의 삶에 다양한 문제들을 갖게 된다.³ 그들은 자신들의 노년을 돌봐 줄 자녀가 없는 문제, 상속받을 자녀가 없는 상황, 장례를 치러 줄 자녀가 없는 문제, 가장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들은 어떤 방법들을 사용했을까?

그동안 구약의 자녀 없는 문제는 불임 여성의 사회적 현실과 불임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자녀 없는 부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와 방법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자녀 없는 부부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행한 연구로는 다음의 두 연구가 대표적이다. 밴 시터스(Van Seters)는 자녀 없는 부부가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제도를 언급하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과 이스라엘 족장사를 비교 연

1 John Byron, "EGLBS Presidential Address: Childlessness and Ambiguity in the Ancient World", *Proceedings EGLBS & MWSBL* 30 (2010), 17-46.

2 이희화,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 '아브라함-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49 (2013), 20.

3 고대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성이 더 많은 아픔과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다. 구약은 자녀를 낳지 못한 문제로 슬픔이나 비참함을 표현하고 있는 사라(창 16:5), 라헬(창 30:1), 한나(삼상 1:6-10)의 사례를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 세 경우는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하갈, 레아, 브닌나의 멸시와 갈등 관계로 인해 자신의 비참함이 밖으로 표출된 경우이다.

구하였다. 벤 시터스의 연구는 이스라엘의 족장사와 고대 근동의 생활풍습 비교를 통해 족장사가 묘사하고 있는 연대를 논의하기 위한 사례로 자녀 없는 부부가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풍습을 연구하였다.⁴ 바이런(Byron)은 “EGLBS Presidential Address: Childlessness and Ambiguity in the Ancient World”(2010)에서 자녀 없는 부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연구를 소개하였다. 바이런은 고대 근동과 구약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사회적 불안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 주술, 약재, 일부다처제, 입양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⁵

본고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자녀 없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가장 잘 묘사한 구약 본문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자녀 없는 문제 해결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한편 사회 전통적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한다.

최근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의 최종 형태가 페르시아 시대에 완성되었으며 예후드의 사회적 상황이 창세기에 반영되었다는 이해를 전제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해한다.⁶ 페르시아 치하 예후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타민족

4 John Van Seters, “The Problem of Childlessness in Near Eastern Law and the Patriarchs of Isra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7 (1968), 401-408.

5 Byron, 윗글, 17-46.

6 Danna N. Fewell and David M. Gunn, *Gender, Power, and Promise: The Subject of the Bible's First Sto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Gershon Hepner, “The Separation Between Abram and Lot Reflects the Deuteronomic Law Prohibiting Ammonites and Moabite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7 (2005), 36-52; Jon L. Berquist (ed.), *Approaching Yehud: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Persian Period*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Kyung-Sik Park, “Separation within Separation Using Gender, Ethnicity, and Class: A Narrative Reading of Lot and Hagar as a Motif of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1 (2016), 31-54; R. Christopher Heard, *Dynamics of Dislocation: Ambiguity in Genesis 12-36 and Ethnic Boundaries in Post-Exilic Judah*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들도 거주하였으며 타민족이 중심이 된 주변 속주들과 경쟁관계에 있었다.⁷ 예후드의 엘리트 계층은 예후드 내 토지의 소유권과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예후드의 사회적 상황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한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과 자녀 상속의 문제도 이러한 사회적 상황 가운데 이해한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지만 암몬과 모압의 조상으로 나타난다(창 19:37-38). 암몬과 모압은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 공동체를 위협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느 6:10-13; 13:1-3, 7; 참조. 신 23:3-6).⁸ 또한 족장사는 페르시아 시대 활동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혼인 정책처럼 동족결혼을 선호한 반면 타민족과의 혼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한다.⁹ 아브라함의 동족인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게 되지만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떠나게 된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동족 가운데 아내를 얻도록 하였으며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지 못하게 하였다(24:3-4). 이삭과 리브가는 여서가 타민족 여인과 혼인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으며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 보내 동족 혼인을 하도록 권하였다(창 26:34-35; 27:46-28:2). 족장사는 동족 혼인을 선호하였으며 아브라함의 기업을 상속 받게 되는 후손들은 동족 혼인을 통해 낳은 자녀들로 한정된다. 본고는 이러한 역사비평적 분석 보다는 최종 본문에 나타난 문화(사회 제도, 풍습), 언어, 신학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본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 없는 부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 제도, 풍습 및 전통적 방법들을 아브라함 이야기 본문(창 11:27-25:11)

7 Rainer Kessler, *The Social History of Ancient Israel: An Introdu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133.

8 Hepner, *윗글*, 36-52.

9 *윗글*, 20.

과 고대 근동의 사례들을 통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친족 입양의 사례로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까운 친족인 조카 롯을 입양하려 했을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둘째, 아브라함과 사라가 친족이 아닌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하려던 외부인 입양 사례에 대해 논의한다. 셋째, 본처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풍습에 대해 논의한다. 넷째, 아브라함과 사라의 진정한 자녀로서 유산 받을 상속자 선정에 대해 논의한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자녀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사회제도인 입양제도(친족 입양, 외부인 입양), 여종을 통해 자녀 낳는 풍습, 상속자 결정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본고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례를 통해 자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2. 자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 해결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데라의 족보(창 11:27-32)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창 22:11)으로 마무리된다. 데라의 족보는 앞으로 전개될 아브라함 이야기를 위한 중요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데라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란에 거류한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하란은 일찍이 죽었고, 나홀은 아버지와 함께 이주하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여 자녀가 없는 상황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이 부부의 첫 등장부터 자녀 없는 부부로 소개된다. 이 부부의 자녀 없는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의 마지막까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학적 요소로 사용된다.

1) 친족 입양 추정 사례: 아브라함과 사라는 롯을 입양하려 했는가?

롯은 데라의 족보와 아브라함의 가나안 이주에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창 11:27-14:24). 데라의 족보에는 세 아들인 아브람, 나홀, 하란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다음 세대인 롯의 이름도 거명되고 있다.¹⁰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도 롯의 이름은 아브람과 사래와 함께 기록되고 있다. 그리고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할 때도 롯은 함께 이동한다.

데라와 아브람의 이야기에서 롯이 주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롯이 데라의 가문을 이어갈 유일한 후손이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지만 하란은 사망했고 나홀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이주하지 않았다. 데라가 고향을 떠나 하란에 거주하게 된 후 그의 이름을 이어갈 아들은 아브람뿐이었다. 그런데 아브람과 사래는 불임이었기에 가문을 상속받을 자녀가 없었다. 데라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이제 함께 있는 혈육인 데라의 손자 롯이 유일하다. 아브람과 사래가 가나안으로 이주하면서 롯을 데리고 간 이유도 롯이 데라의 가문과 아브람의 유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혈육이었기 때문일 것이다.¹¹

구약은 기업 상속자의 범위를 자녀와 친족 관계까지 규정하고 있다.¹² 민수기 27장 8~11절에 나타난 기업 상속 규례에 의하며 고인의 기업은 아들들에게 상속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는 고인의 딸, 딸도 없는 경우는 고인의 형제, 형제가 없는 경우는 고인의 아버지의 형제, 아버지의 형제가 없는 경우는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상속 받게 된다. 민수기 27장의 기업 상속 규례

10 본고에서 아브라함과 사래의 이름은 창세기 본문을 따라서 전반부는 아브람과 사래(창 11:27~17:4)를 사용하고 그들의 이름이 변경된 후부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한다(창 17:5~15). 참조. 강후구, “구약성서의 인명 변화에 대한연구”, 『구약논단』 82 (2021), 9.

11 Naomi Steinberg,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47-48.

12 Bill T. Arnold,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54.

에 의하면 롯은 아브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아브람의 기업을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수기 27장 8~11절의 기업 상속 규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아브람 이가의 배경이 되는 족장시대에도 유사한 규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다수의 학자들은 아브람의 자녀가 아닌 롯이 아브람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에 따라 아브람이 롯을 입양해야 했을 것으로 제안한다.¹³ 고대 근동의 입양에는 아브람과 롯의 관계처럼 형제의 자녀를 입양하여 상속자로 삼는 사례들이 나타난다.¹⁴ 스타인버그(Naomi Steinberg)는 아브람과 사래의 불임, 고대 근동의 조카 입양 사례, 그리고 롯이 아브람을 따라 계속해서 이주한 것을 근거로 아브람이 롯을 입양했다고 이해한다.¹⁵ 스타인버그는 롯이 안정적인 갈대아 우르에 나홀과 함께 남거나 거주지가 있던 하란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아브람과 함께 미지의 영역인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은 아브람이 롯을 입양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요세푸스도 아브람이 조카 롯을 입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Antiquities I:7:1). 아브람이 롯을 입양했다는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기록을 생각해보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브람과 사래는 불임으로 자녀가 없었다.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롯을 계속 데리고 갔다. 아브람은 소돔에서 전쟁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기도 했다. 아브람은 롯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롯이 아브람을 떠나 소돔으로 이주하면서 아브람과 롯의 관계에

13 Steinberg,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47-48; Larry R. Helyer, "Abraham's Eight Crises: The Bumpy Road to Fulfilling God's Promise of an Heir", Hershel Shanks (ed.), *Abraham & Family: New Insights into the Patriarchal Narratives* (Washington: Biblical Archeology Society, 2000), 47-48.

14 김구원, "고대근동의 입양 공식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개신논집』 10 (2011), 78-79.

15 Steinberg, 앞글, 47-48.

는 문제가 생겨난다. 특히, 아브람이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구한 후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정착하게 되었을 때 아브람은 더 이상 롯을 상속자로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일한 혈육인 롯이 소돔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브람은 하나님에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겠다고 언급한다(창 15:1-5). 즉 롯이 더 이상 아브람의 상속자이기를 포기하고 떠나갔을 때 아브람은 롯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둘 수가 없었을 것이다. 고대근동의 입양제도에는 입양부모 혹은 입양인이 입양을 파기할 수 있었다.¹⁶

아브람이 롯을 입양했을 것이라는 제안은 설득력이 있지만 몇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후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롯을 입양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람에게 이주 명령(“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과 함께 명령 이행할 시 수반될 축복(“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을 약속한다(창 12:1-3).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준 첫 약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난 후손을 의미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민족에 사용된 히브리어 **גוי**(고이)는 혈연 관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스피어저(E. A. Speiser)는 민족에 사용된 히브리어 **גוי**(고이)를 **אם**(암)과 비교하며 **גוי**는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인 개념으로 이해한다.¹⁷ 베스터만(C. Westermann) 역시 **גוי**는 “정치적인 개념”이나 **אם**은 “친족관계”를 지칭한다고 이해한다.¹⁸

16 김구원, *율글*, 82-85.

17 E. A. Speiser, *Genesis* (AB;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86.

18 베스터만은 야위스트(**גוי**)가 **גוי**를 사용한 것은 자신들이 활동하던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기에 “정치적으로 연합된 사람들”을 의미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견해는 창세기 12장 2절의 또 다른 약속인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야위스트가 활동하던 다윗과 솔로몬 왕정 시기에 이르러서 다시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지 될 수 있다(삼하 7:9; 참조. 삼하 8:13; 왕상 1:47). Claus Westermann,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1), 149-150; 참조. 오민수, “이스라엘의 선택과 열방과의 관계 스펙트럼”, 『구약논단』 82 (2021), 48.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처음 약속하신 축복은 자녀의 축복이라기보다 아브람이 이룰 민족, 창대하게 될 명성, 아브람에 대한 축복, 그리고 아브람을 통한 모든 족속의 축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민족이라는 개념이 혈연관계 보다 정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면,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지 알지 못하였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받게 된다(“네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창 12:7).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람은 롯을 입양하여 상속자로 삼을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두 번째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아브람의 롯 입양과 구약의 상속법에 대한 부분이다. 구약의 상속법은 결혼한 남성이 자녀가 없이 사망할 경우 가장 가까운 친족을 고인의 상속자로 지정한다(민 27:8-11). 아브람에게 롯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기에 아브람이 사망할 경우 롯은 법적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아브람이 상속을 위해 롯을 입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구약의 법 조항은 족장시대 이후에 제정된 것으로 아브람의 시대에 적용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기에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롯을 상속자로 지정하기 위해 입양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아브람은 자신의 아내 사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해 알지 못했기에 조카 롯을 입양하려고 시도한 듯하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왔을 때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데 아브람

19 Terence E.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422.

은 사래를 자신의 누이로 소개함으로써 사래가 이집트 왕에게 범하여질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한다(창 12:10-20).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명보다 경홀히 여겼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래를 통하여 성취되어야만 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런데도 아브람과 롯의 관계를 입양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브람이 롯을 입양한 표현이나 묘사가 창세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입양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입양 절차나 입양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브람의 롯 입양이 행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롯에 대한 입양 언급이나 표현이 없는 상황에서 롯을 입양했다는 주장은 하나의 제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아브람이 롯을 입양했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아브람과 롯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서로 경쟁하였다는 점이다. 아브람은 롯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였지만, 롯은 아브람과 구분되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롯이 구분되는 소유와 목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로의 소유가 많아짐에 따라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쟁 관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롯이 아브람에게 입양되었다면 아브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 아브람의 소유가 곧 롯의 소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롯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아브람과 경쟁하게 된 것은 롯이 아브람에게 입양되기보다는 사망한 아버지 하란의 소유를 이어받아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 스타인버그는 아브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사래를 바로에게 떠나보낸 후 새로운 아내와 혼인할 기회로 삼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한다. 스타인버그는 아브람이 사래를 바로와 혼인시키고 바로로부터 받은 혼인지참금을 자신이 다른 여인과 혼인할 때 줄 지침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Steinberg,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54-55; 정일승은 아브라함이 사래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묘사와 성관계에 대한 암시가 부재함을 통해 아브라함이 사래를 사랑하였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정일승, “하같은 과연 약자 혹은 희생양인가?”, 『구약논단』 39 (2011), 49-50.

요약하면, 고대 근동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아브람이 롯을 입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본문에는 아브람의 롯 입양이 이루어졌다는 명시적 증거가 없다. 본문에는 입양 절차나 입양과 관련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아브람은 고인이 된 자신의 형제 하란을 위해 롯을 양육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족장 시대의 대가족(베트 아브, '아버지의 집') 제도에서 결혼 후 사망한 가족의 자녀를 고아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양육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후 아브람은 자녀를 낳지 못하여 상속자가 없게 되었을 때 롯을 자녀로 입양하여 상속자가 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롯이 대가족 제도 안에서 보호받고 양육된 후 사망한 아버지 하란의 이름을 이을 상속자로 남기 원했다면 아브람에게 입양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창세기에서 아브람은 롯을 양육하고 입양하기 원했으나 입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가 없는 가운데 자신의 상속자로 기대했던 롯이 자신을 떠났을 때 아브람은 큰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롯이 아브람을 떠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음과 같이 자녀와 땅의 약속을 재확인해 준다.²¹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창 13:14-17). 하나님은 자녀의 약속을 재확인시킴으로 아브람의 상실된 마음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 중임을 알려준다.

2) 외부인 입양 추정 사례: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하려 했는가?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들에게

21 Helyer, “Abraham’s Eight Crises”, 47.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였다(창 12:2, 7; 13:16).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고 몇 해가 지났지만 아브람에게 자녀는 없었다. 자신의 유일한 혈육인 조카 롯도 아브람을 떠났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자신의 노년과 남겨질 재산들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아브람이 자녀의 약속을 받은 나이는 칠십 오 세로 첫아들을 낳기에 매우 늦은 나이였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를 근거로 볼 때 아브람이 살던 시대에 아버지가 첫아들을 얻는 나이는 평균 삼십 대 초반에서 중반이었다. 이 족보는 데라가 첫아들을 낳을 당시의 나이를 모호하게 기록한다. 창세기 11장 26절은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고 기록한다. 이 구절은 데라가 첫아들을 칠십 세에 낳았는지 혹은 아브람과 나홀, 하란을 모두 낳은 나이가 칠십 세였는지 모호하게 기록한다. 만일 데라가 칠십 세에 첫아들을 낳았다면 이는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삼십 오 년 이상 늦은 나이이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가나안에 도착한 나이가 칠십 오 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더 늦게 첫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브람은 칠십 오 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도착한 후 몇 해가 지나도 자녀가 없을 때 조급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마침내 아브람은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말한다(창 15:2). “자식이 없다”는 표현은 עָרֵירִי הוּלֵךְ אֶנֶכִּי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이 번역한 것처럼 자녀가 없는 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혹은 알터(Robert Alter)의 제안처럼 הוּלֵךְ을 죽어가고 있음에 대한 완곡어법으로 이해하여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참조. “I shall die childless”, TNK).²²

22 Robert Alter, *Genesis: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6), 63.

아브람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을 때 조바심이 났을 것이다.

아브람은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표현에 히브리어 אֲרִירָא(아리리)를 사용한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세 차례 더 나타나는데 모두 하나님에 의해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사용된다(레 20:20-21; 렘 22:30). 히브리어 אֲרִירָא가 사용된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아브람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²³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례도 자신이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창 16:2). 아브람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자신의 집에 속한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한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언급하였을까? 아브람은 자녀도 없고 유일한 혈육인 롯도 떠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상속자가 될 만한 인물을 찾아야 했을 것이다. 엘리에셀은 아브람 집안에서 상속자로 세울 만한 특별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엘리에셀이 아브람의 집에 어떻게 속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소개하는 בֵּיתִי בֶן־מִשְׁק אֱלִיעֶזֶר(창 15:2), אֱלִיעֶזֶר בֶּן־מִשְׁק(창 15:2), בֶּן־בֵּיתִי(창 15:3)란 표현을 통해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다. 이 표현들을 통해 볼 때 아브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언급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²⁴

23 고든 웬햄, 「창세기 1-15」(박영호 옮김),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570; 존 E. 하틀리, 「창세기」(김진선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9), 236-237.

24 이 세 표현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웬햄, 「창세기 1-15」, 569-570;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420-422; Nahum M. Sarna,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89), 382-383.

첫째, 엘리에셀은 아브람 집안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특별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초기 번역들은 אֱלִיעֶזֶר을 사람의 이름보다는 아브람의 집안에서 특정한 업무를 맡은 “집사의 아들”(탈굴, 불가타역, 태오도시온역)로 해석한다.²⁵ 이러한 해석은 히브리어 אֱלִיעֶזֶר을 אֱלִיעֶזֶר (“재산”, 욥 28:18)으로 수정 혹은 “재산”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함으로 집을 총괄하는 집사로 이해한다(BDB 606).²⁶ 이 경우 엘리에셀을 지칭하는 בֵּיתֵי אֱלִיעֶזֶר는 아브람 집의 재정을 담당하는 청지기, 집사의 아들로 이해 할 수 있다. 본문에서 אֱלִיעֶזֶר 대신 אֱלִיעֶזֶר을 사용한 이유는 엘리에셀을 소개하는 אֱלִיעֶזֶר אֱלִיעֶזֶר (“다메섹 엘리에셀”, 창 15:2b) 구절과 관련하여 “다메섹”과의 언어유희를 위해 변경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아브람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보내는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중”을 엘리에셀과 동일시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영향을 주었다(창 24:2).

둘째,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람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일 가능성이 있다. 히브리어 אֱלִיעֶזֶר은 구약성경에서 이곳에만 사용되고 있기에 그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제안되었다. 칠십인역은 אֱלִיעֶזֶר이 나온 구절을 ó δὲ υἱὸς ἑστὶν Μασακ τῆς οἰκογενεοῦς μου οὗτος Δαμασκὸς Ἐλιεζερ(“나의 집 여종 마섹의 아들, 그는 다마스쿠스 엘리에셀입니다”)로 번역하고 있다. 칠십인역은 אֱלִיעֶזֶר을 사람의 이름으로 이해하며 엘리에셀을 아브람 집에 속한 여종 마섹의 아들로 이해한다. 희년서 14장 2절도 마섹을 여종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브람 집에 속한 마섹으로부터 태어난 엘리에셀이 상속자로 언

25 웬함, 「창세기 1-15」, 569-570; Sarna, *Genesis*, 382. 까젤(H. Cazelles)은 집안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가운데 “술잔을 따라 올리는 사람의 아들”(아퀼라역)로 이해한다. 술잔을 따라 올린다는 의미는 אֱלִיעֶזֶר의 어근을 אֱלִיעֶזֶר(“마사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H. Cazelles, “Connexions et Structure de Gen 15”, *Revue Biblique* 69 (1962), 321-349.

26 현대 다수의 번역본도 메섹을 “재산”의 의미로 이해하며 유사하게 “내 집의 소유자” 혹은 “내 집의 상속자로” 번역한다(개역개정, 새번역, NIV, NRSV). 웬함, 「창세기 1-15」, 569-570.

급된 이유는 무엇일까? 엘리에셀이 아브람과 여종 마섹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아브람의 상속자로 언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²⁷ 아브람과 사래로부터 태어난 약속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아브람과 여종 사이에서 태어난 엘리에셀은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레이몬드 애플(Raymond Apple)은 אֱלִיעֶזֶר בְּמִצְרַיִם (“다메섹 엘리에셀)을 מֶרֶץ과 בְּמִצְרַיִם이 함께 사용되어 “메섹의 피[혈육]” 엘리에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한다.²⁸

그러나 창세기 본문에서 하나님은 엘리에셀이 아브람의 상속자가 아니라 아브람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아브람과 여종 마섹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창 15:4). 또한 엘리에셀이 아브람과 여종 마섹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로부터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셋째, 엘리에셀은 아브람의 집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다메섹 출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⁹ 다메섹은 구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도시이지만 창세기에서는 단 두 번 언급된다. 다메섹은 아브람이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 전투에 참여하여 승리한 장소로 처음 언급된다(창 14:15). 이 사건 후 롯은 소돔으로 떠나고 아브람은 새로운 상속자를 계획하며 다메섹 엘리에셀을 언급한다(창 15:2). 다메섹 엘리에셀이 창세기 14장 이후에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추정할 때 14장의 다메섹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창세기 라바 44장 9절은 엘리에셀이 아브람 집의 사람들을 잘 훈련했으며 “다메섹 원편 호바”에서 치러진 전투에서 승리할 때 큰 공을 세웠을 가능성에 대해서

27 James C. VanderKam, *Jubilees 1-21*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8), 491; Raymond Apple, “The Meaning of Dammesek Eliezer”, *Jewish Bible Quarterly* 45 (2017), 188.

28 Apple, *윗글*, 188.

29 요세푸스는 아브람이 한 때 다메섹을 통치하였으며 아브람의 이름을 간직한 마을이 있다고 언급한다(*Antiquities* 1:7:2).

언급한다(Genesis Rabbah 44:9). 엘리에셀이 다메섹에서 승리에 크게 공헌하며 아브람 집안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브람은 엘리에셀이 자신의 집에서 특별한 인물이었기에 상속자로 언급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람의 자녀나 친족이 아닌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구약의 법률들과 고대 이스라엘의 성경 외적 증거들은 외부인이 상속자가 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 고대 근동에서는 입양 부모가 친족, 종, 외부인을 자녀로 입양하는 입양제도가 널리 행해졌다.³⁰ 셀만(M.J. Selman)에 의하면 고대 근동 문헌들에서 친족이 아닌 자 혹은 종이 상속자가 되는 방법으로는 입양이 유일하다.³¹ 입양부모들은 입양인(혹은 입양아동)을 양육하고 상속자로 삼으며, 입양인은 부모의 노후 생활을 돕고, 장례를 치르고, 조상제사를 드리게 된다. 입양을 통한 입양 부모와 입양인의 상호 의무는 법적인 것으로 서로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입양이 파기될 수 있다.³² 아브람은 고대 근동에서 널리 행해진 입양을 통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을 것이다.³³

그러나 아브람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 생각을 했을 뿐 입양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는 엘리에셀의 입양에 대해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표현이 없다. 만일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입양했다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을지라도 고대 근동의 입양 사례를 따라 이삭뿐 아니라 엘리에셀에게도

30 웬함, 윗글, 570; 노남근, 「고대 근동과 구약의 양자신학」(서울: CLC, 2019), 102-103; 제임스 B. 프리차드, 강승일 외 역, 『고대 근동 문학 선집』(서울: CLC, 2016), 219-220.

31 M. J. Selma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Patriarchs", *Tyndale Bulletin* 27 (1976), 125.

32 김구원, "고대근동의 입양 공식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개신논집』 10 (2011), 69-86.

33 노남근, 「고대 근동과 구약의 양자신학」, 102-103; 하틀리, 「창세기」, 237; 천사무엘, 「창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28; W. F. Albright, "Abraham the Hebrew: a New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63 (1961), 47.

재산을 상속해야 한다.³⁴ 그러나 창세기에서 아브람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자는 이삭뿐이었으며 엘리에셀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입양한 묘사가 없고, 엘리에셀이 아브람의 재산의 일부분도 상속받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입양은 불이행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아브람은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언급했음에도 자녀로 입양하지 않았을까? 아브람은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아브람의 몸에서 난 자”가 아브람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기에 엘리에셀의 입양을 진행하지 않았을 수 있다. 혹은 아브람은 냉소적인 의미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언급했을 수도 있다. 웬함은 פְּחָדָי פְּחָדָי (“돌진하다, 공격하다”)에서 파생되었으며 פְּחָדָי-וְנָוּם은 “공격자, 강탈자”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스니저스(L.A. Snijders)의 제안을 소개한다.³⁵ 자녀가 없는 아브람은 자신의 혈육이 아닌 엘리에셀이 재산을 강탈하게 될 것이라는 냉소적 의미로 다메섹 엘리에셀을 사용했다는 제안이다. 아브람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언급한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불평하듯 이야기한다고 이해하는 것이다(창 15:3). 아브람은 이전에도 히브리어로 עֲרִירִי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라고 불평하듯 이야기했다. 이후에도 아브람은 사라의 몸에서 난 자녀가 후사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냉소적으로 대답한다(창 17:18). 아브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언급은 자신이 연로해짐에도 자녀를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냉소적인 반

34 누지 문서에는 입양 부모가 이들이 없어 입양인을 양자로 삼은 후에 친아들이 태어날지라도 입양부모의 재산을 입양인과 친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어야 함을 입양문서에 명시하고 있다. 프리차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 414.

35 웬함, 「창세기1-15」, 569-570.

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특별하게 생각하여 상속자로 생각했던 혹은 냉소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했던 엘리에셀은 아브람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였다. 아브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한다(창 15:4). 아브람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더 구체화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민족의 약속(창 12:2)으로부터 시작하여 자손의 약속(창 12:7) 그리고 아브람 몸에서 태어날 자(창 15:4)에 대한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구체화한다.

3) 여종을 통한 자녀 낳기 풍습: 아브라함과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했으나 그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창 15:4). 아브람과 사래는 상속자가 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에도 그 약속이 사래를 통해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주어 자녀 낳을 계획을 세운다(창 16:1-4). 사래는 고대 근동의 풍습 중 폴리코이티혼(polycoity marriage)을 통해 자녀 낳을 계획을 세운다.³⁶ 폴리코이티혼은 한 남성이 본처 외에 다른 아내들을 둘 수 있는 일부다처제의 형태 중 하나이다. 폴리코이티혼에서 모든 아내가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본처는 다른 아내들보다 많은 권함과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다른 아내들은 첩과 같은 지위로 이해될 수 있

36 Katharine Doob Sakenfeld, *Just Wives? Stories of Power and Survival in the Old Testament and Today*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12; Naomi A. Steinberg, “The World of the Family in Genesis”, Craig A. Evans, Joel N. Lohr and David L. Petersen (eds.), *The Book of Genesi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Leiden, Boston: Brill, 2012), 283.

다.³⁷ 여종은 일반적인 혼인 절차를 따라 아내가 되지 않았으며 혼인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이면서 여종의 신분을 유지하였다.

여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얻는 것은 신아시리아, 이집트, 아시리아, 누지 등 고대 근동 사회에서 행해지던 관습이었다.³⁸ 웨스트브룩(Westbrook)은 다음 두 규례를 통해 일반 여인과 여종이 남자의 아내가 되었을 경우의 차이점을 보여준다.³⁹ 함무라비 법전(LH 146-147)에 따르면 여자 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여종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여자 주인은 그 여종을 더 이상 팔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여주인은 여전히 그 여종을 자신의 종으로 소유하게 된다. 한편 LH 171은 여종이 남자 주인의 아이를 출산할 경우 남자 주인의 사망 후 법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⁴⁰ 두 규례는 여종이 남자 주인의 여인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혼인 관계의 아내는 아님을 보여준다. 여종은 여전히 여주인에게 종의 신분을 유지한다. 또한 여종은 출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출산과 함께 다른 곳에 팔리지 않을 법적 권리와 남자 주인의 사후에야 자유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하갈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 추정할 수 있다. 하갈은 사례의 여종이었으며 사례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람에게 보내졌다. 창세기 16장 3절에서 사례가 여종 하갈을 아브람에게 אִשָּׁתָּא 로 주었다는 표현이 나온다. 창세기 16장 3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אִשָּׁתָּא 와 אִשָּׁתָּא 는 “아내로 주다”라는

37 Sakenfeld, *윗글*, 12.

38 김구원, “고대근동의 입양 공식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74.; Steinberg,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61-62; C. H. Gordon, “Biblical Customs and the Nuzi Tablets”, *Biblical Archaeologist* 3 (1940), 2-3; Speiser, *Genesis*, 119-21; Van Seters, “The Problem of Childlessness in Near Eastern Law and the Patriarchs of Israel”, 401.

39 R. Westbrook, “The Female Slave”, V.H. Matthews, B. M. Levinson and T. Frymer-Kensky (eds),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1998), 215.

40 *윗글*, 215.

의미로 혼인에 대한 숙어적 표현이다.⁴¹ 일반적인 혼인상황에서는 아내로 이해되기에 하갈이 아브람의 아내가 된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하갈은 창세기 16장 3절에서 **הַשָּׂרָה**로 한 번 언급된 후 다시는 **הַשָּׂרָה**로 언급되지 않는다.⁴² 하갈은 계속해서 **אִשְׁתּוֹ**(여종, 창 16:5, 6, 8; 25:12) 혹은 **אִשְׁתּוֹ**(여종, 창 21:10, 12, 13)로 불리게 된다. 아브람 이야기에서 **הַשָּׂרָה**는 아브람의 아내 사래에게만 반복적이며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고대근동의 사례와 유사하게 여종이 아브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여종의 신분이며, 사래와 같은 지위의 아내는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브람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출생하였음에도 하갈은 아브람의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을 볼 때 정식 아내로서 이혼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사래와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도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낳는다(창 30:1-13). 레아와 라헬은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이해한다(창 30:6, 17-18).⁴³ 그러므로 사래가 여종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에 반한 행위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아브람과 사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반드시 사래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 사래는 당시의 관습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최선의 방법을 통해 아브람의 자녀를 낳으려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래는 레아와 라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방법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아브람은 사래의 계획을 받아들인 후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다. 자녀 없는 부부의 문제가 이스마엘을 통하여 해결되었다. 창세기 16장

41 주원준, “이름 짓기 문형과 혼인 문형: 성경 히브리어의 양적 구조 분석으로 발견된 고정된 형식들” 『Canon&Culture』 4(1), 2010, 204-208.

42 한글과 영어 번역본들은 히브리어 **הַשָּׂרָה**를 아내(새번역), 첩(개역개정), 소실(공동번역), wife(NIV, NRS) concubine(TNK) 등 아내 혹은 정식 아내가 아닌 표현으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다.

43 Fretheim, “The Book of Genesis”, 452.

15절은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라고 기록한다. 이 구절은 이스마엘을 아브람의 아들로 두 차례 언급한다. 고대 근동의 입양문서들은 남편이 여종에게서 낳은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언한다.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여자 종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은 남편이 “너는 나의 자녀이다”라고 선언할 때 비로소 남편의 공식적인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⁴⁴ 만일 남편이 여종으로부터 낳은 아이들을 “나의 자녀이다”라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은 남편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다. “누지 문서도 아버지가 첩에게서 얻은 자녀들을 자신의 자녀로 선언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유업을 나눌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⁵ 이스마엘은 아브람의 아들로 반복하여 지칭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다(창 17:23, 25, 26; 21:9; 25:9; 12).

아브람과 사래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창세기는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얻은 팔십 육 세(창 16:16)부터 아브람이 구십 구세가 될 때(창 17:1)까지 십 삼년이란 기간에 대해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는다. 아브람과 사래는 이 기간에 아브람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리라 생각했을 것이다. 십 삼년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신 후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대답한다(창 17:18).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닌 사라가 잉태할 아들이 아브라

44 김구원, “고대근동의 입양 공식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74-77.

45 윌글, 74-75.

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 없는 문제는 이스마엘을 통해 해결되었으나 창세기의 신학적 관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나갈 아브라함의 상속자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마침내 사라가 잉태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된다. 그리고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며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한다(창 21:10). 창세기 25장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상속 받았음을 언급하며 이스마엘에 대한 상속은 언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과양을 당할만한 과오가 없이 집에서 쫓겨나는 장면은 구약성경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장면이다. 구약의 장자 관련 규례는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을 때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장자일 경우 아버지 소유의 두 배의 몫을 기업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신 21:15-17). 만일 이 규례가 여종이 낳은 아들에게도 적용된다면, 이스마엘은 장자의 몫으로 아브라함의 기업에서 두 배의 몫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상속 받은 것으로 기록한다. 신명기에 나타난 장자의 권리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창세기 족장사에서 장자인 이스마엘, 에서, 르우벤은 모두 장자의 권리를 얻지 못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명기 규례를 창세기 족장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사례는 누지 문서에서 발견된다. 이 문서는 본처가 여종에게서 태어난 후 입양한 아들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금지한다(HSS 5:67).⁴⁶ 고대 근동의 입양법도 입양된 아들은 특별한 잘못을 범하였

46 Garroway, *Children in the Ancient Near Eastern Househol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4), 71, 74.

을 경우만 파악할 수 있으며, 입양부모가 일방적으로 입양 자녀를 파악시킬 경우 큰 벌금을 지불하거나 상속의 몫을 주어야 했다(LH 165, 168, 191).⁴⁷ 사라가 이스마엘에게 상속의 몫을 주지 않고 쫓아내는 것은 고대 근동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게로웨이(Kristine Carroway)는 이러한 금지 규정이 포함된 것은 오히려 이러한 관행이 종종 행해졌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본다.⁴⁸ 본처가 자신의 아들을 낳은 후 아들의 상속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된 아들 혹은 여종의 아들을 쫓아내는 관행이 종종 실행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속자 이삭

아브라함이 구십 구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17:1-16). 새로운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다(창 12:2; 17:1-8, 15-19, 21).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인 약속을 한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창 17:15~16).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의 약속(창 12:2)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창 12:7),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에 대한 약속(창 15:4), 사라가 낳을 아들에 대한 약속(창 17:15-19),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시점까지(창 18:10) 점점 구체화한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낳은 이삭뿐 아니라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과 그두라에게서 낳은 자녀들까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중 특별하게 묘사된다. 아브라함에

47 윗글, 50, 68-71.

48 윗글, 74.

게 많은 아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즉 독자로 반복하여 표현한다(창 22:2, 12, 16). 또한, 하나님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며(창 17:19),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만이 아브라함의 ‘씨’(자녀)라 불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창 21:12).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언급한다(창 24:36). 늙은 종은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정보를 제공한다(창 25:20). 아브라함의 삶 마지막을 묘사하고 있는 창세기 25장 1-10절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음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후처인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상속과 관계없는 재산(מַנְיָהּ, “선물”)을 나누어준 후 이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한다(창 25:5-6).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모든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아니었다. 반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본부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입양 절차가 필요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아들이었다.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얻는 상속자가 되었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창 17:19).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임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죽음과 매장으로 마무리된다.

3. 나가는 말

본고는 자녀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 연구를 통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구약에서 자녀 없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가장 잘 묘

사하고 있다(창 11:27-25:11). 그들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한편 당대의 사회 전통적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창 12:2)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창 12:7),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에 대한 약속(창 15:4), 사라가 낳을 아들에 대한 약속(창 17:15-19),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시점까지(창 18:10) 점점 구체화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기에 가까운 친족 조카인 롯을 입양하여 큰 민족을 이루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고 시간이 흘러도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신뢰하던 외부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입양하여 상속자로 삼을 생각을 했다. 입양제도는 자녀 없는 부부의 문제 중 자신들의 노년을 돕고 유산 상속자를 얻을 수 있는 사회 풍습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으로 구체화 될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폴리코이티혼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자녀로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구체화하여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을 때 비로소 부부 사이에 자녀 이삭이 태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삭을 상속자로 삼게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화함에 따라 당대에 사용 가능한 입양제도(친족 입양, 외부인 입양), 폴리코이티혼 풍습, 상속자 결정 등의 제도와 풍습을 통해 자녀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례는 구약의 자녀 없는 부부들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구약의 자녀 없는 부부들은 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종교적 방법(창 25:21; 삼상 1:10-11; 참조, 창 30:22; 왕하 4:16)과 둘

째 부인 혹은 첩을 통해 자녀를 낳는 사회적 풍습을 사용한다(창 16:1~16; 30:3-13; 삼상 1:2). 라헬의 경우는 식물을 사용하여 불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 하기도 한다(“합환채”, 창 30:14-24). 구약의 인물들은 자녀 없는 문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종교적 방법을 사용하는 한편 사회 제도와 풍습을 통하여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참고문헌

- 고든 웬합, 「창세기1-15」(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1).
- 강후구, “구약성서의 인명 변화에 대한연구”, 「구약논단」 82 (2021), 8-45.
- 김구원, “고대근동의 입양 공식의 관점에서 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개신논집」 10 (2011), 69-86.
- 노남근, 「고대 근동과 구약의 양자신학」(서울: CLC, 2019).
- 오민수, “이스라엘의 선택과 열방과의 관계 스펙트럼”, 「구약논단」 82 (2021), 40-71.
- 오원근, “오경의 정경적 관점으로 본 아브라함 언약 고찰”, 「구약논단」 61 (2016), 41-75.
- 이희학, “여성 신학적 관점에서 다시 읽는 ‘아브라함-사라 이야기’”, 「구약논단」 49 (2013) 14-41,
- 정일승, “하같은 과연 약자 혹은 희생양인가?”, 「구약논단」 39 (2011), 33-58.
- 주원준, “이름 짓기 문형과 혼인 문형: 성경 히브리어의 양적 구조 분석으로 발견한 고정된 형식들” 「Canon&Culture」 4(1), 2010, 189-214.
- 제임스 B. 프리처드, 「고대 근동 문학 선집」(강승일 외 옮김), (서울: CLC, 2016).
- 존 E. 하틀리, 「창세기」(김진선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선교회, 2019).
- 천사무엘, 「창세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 Albright, W. F., “Abraham the Hebrew: a New Archaeological Interpretation”, *Bulletin of the American Schools of Oriental Research* 163 (1961), 36-54.

- Alter, Robert., *Genesis: Translation and Commentary* (New York: W.W. Norton & Company, 1996).
- Apple, Raymond, “The Meaning of Dammesek Eliezer”, *Jewish Bible Quarterly* 45 (2017), 169-172.
- Arnold, Bill T., *Gene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Berquist, Jon L. (ed.), *Approaching Yehud: New Approaches to the Study of the Persian Period* (Atlant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7)
- Byron, John., “EGLBS Presidential Address: Childlessness and Ambiguity in the Ancient World”, *Proceedings EGLBS & MWSBL* 30 (2010), 17-46.
- Cazelles, H., “Connexions et Structure de Gen 15”, *Revue Biblique* 69 (1962), 321-349.
- Chiera, E., *Excavations at Nuzi, vol. 1: Texts of Varies Contents* (Harvard Semitic Series 5.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9).
- Hamilton, Victor P.,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0).
- Heard, R. Christopher, *Dynamics of Diselection: Ambiguity in Genesis 12-36 and Ethnic Boundaries in Post-Exilic Judah*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1).
- Garroway, Kristine, *Children in the Ancient Near Eastern Household*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14).
- Gordon, C. H., “Biblical Customs and the Nuzi Tablets”, *Biblical Archaeologist* 3 (1940), 1-12.
- Fewell, Danna N. and David M. Gunn, *Gender, Power, and Promise: The Subject of the Bible's First Story*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 Fretheim, Terence E., “The Book of Genesis”, in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I. (Nashville: Abingdon Press, 1994), 319-674.
- Helyer, Larry R., “Abraham's Eight Crises: The Bumpy Road to Fulfilling God's Promise of an Heir”, Hershel Shanks (ed.), *Abraham & Family: New Insights into the Patriarchal Narratives* (Washington: Biblical Archeology Society, 2000),

41-56.

- Hepner, Gershon, "The Separation Between Abram and Lot Reflects the Deuteronomic Law Prohibiting Ammonites and Moabites",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117 (2005), 36-52.
- Kessler, Rainer, *The Social History of Ancient Israel: An Introduc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8).
- Park, Kyung-Sik, "Separation within Separation Using Gender, Ethnicity, and Class: A Narrative Reading of Lot and Hagar as a Motif of Discrimination",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101 (2016), 31-54.
- Sakenfeld, Katharine Doob, *Just Wives? Stories of Power and Survival in the Old Testament and Today* (Louisville, Londo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 Sarna, Nahum M., *Genesis*. (JPS Torah Commentary.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of America, 1989).
- Selman, M. J.,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Patriarchs", *Tyndale Bulletin* 27 (1976), 114-136.
- Speiser, E. A., *Genesis* (AB; Garden City, N.Y.: Doubleday, 1964).
- Steinberg, Naomi A., *Kinship and Marriage in Genesis: A Household Economics Perspectiv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 "The World of the Family in Genesis", Craig A. Evans, Joel N. Lohr and David L. Petersen (eds.), *The Book of Genesis: Composition, Reception, and Interpretation* (Leiden, Boston: Brill, 2012), 279-300.
- VanderKam, James C., *Jubilees 1-21*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8).
- Van Seters, J., "The Problem of Childlessness in Near Eastern Law and the Patriarchs of Israe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87 (1968), 401-408.
- Westbrook, R., "The Female Slave", V.H. Matthews, B. M. Levinson and T. Frymer-Kensky (eds), *Gender and Law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1998), 214-238.
- Westermann, Claus, *Genesis 12-36*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81).

Williams, James G., "The Beautiful and the Barren: Conventions in Biblical Type-Scene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17 (1980), 107-119.

검색어

불임

입양

결혼

아브라함

사라

**Methods to Solve the Problems of a Childless Couple in the Old Testament: A Case Study of Seeking Abraham and Sarah's Heir
(Genesis 11:27-25:11)**

Jun K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Several childless couples appear in the Old Testament: Abraham and Sarah(Gen. 11:27-21:5), Isaac and Rebekah(Gen. 25:21-26), Jacob and Rachel(Gen. 29:31-30:24), Manoah and his wife(Judg. 13:2-24), Elkanah and Hannah(1 Sam. 1:2-20), Shunem woman and her husband(2 Kgs. 4:8-17). These couples have various problems. They face the misery of having no children to take care of in their old age, no children to inherit, and no children to carry the paternal name in Israel. What methods did childless couples use to work through their infertility? Until now,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infertility in the

www.kci.go.kr

Old Testament with a major interest in the social reality of infertile women and God's role in the stories. However, childless couples' attempts to solve this problem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This paper highlights an underexplored part of ancient Israelites' lives using Abraham and Sarah as a case study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childlessness(Gen. 11:27-25:11). This story best depicts the problems and solutions to childlessness in the Old Testament. As believers, Abraham and Sarah trust and wait for God's promises, while attempting to solve problems through the societal methods of the time. In the story of Abraham, God's promise begins with the promise of a great nation(Gen. 12:2), the promise of Abraham's descendants(Gen. 12:7), the promise of descendants to be born in Abraham's body(Gen. 15:4), the promise of Sarah's son(Gen. 17:15-19), and the time Sarah gave birth(Gen. 18:10). As God's promise concretizes, Abraham and Sarah try to conceive through institutions and customs available at the time. This paper suggests Abraham and Sarah used social methods such as adoption (relative adoption, alien adoption), polycoity marriage, and an inheritance decision in conjunction with religious methods of trusting God to solve their problem. This case study reveals that ancient Israelites used both social and religious methods to solve childless couples' problem.

KeyWords

infertility

adoption

marriage

Abraham

Sarah

- 투고일: 2022년 1월 15일
- 심사일: 2022년 2월 16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2월 17일

www.kci.go.kr